

# 농가 지원에 산불 예방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일석이조'

## 장성군, 8개조 파쇄지원단 운영... 4월 10일까지 172농가 105ha 규모 작업

장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4월 10일까지 지역 내 172농가 105헥타르(ha) 규모 농지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병해충 발생을 억제한다. 농가 자체 소각을 줄일 수 있어, 산불 예방 효과도 있다.

지원 대상은 과수 전정가지와 콩대, 고추대, 잡캐대 등 부산물 수거 및 처리에 상당한 노동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다. 파쇄된 부산물은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업 추진은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가 맡았다. 8개 조 24명의 지원단이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파쇄, 처리 작업 전반을 책임진다.

자세한 작업 일정과 규모는 작목과 지형, 파쇄지원단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진원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한 번 농사를 지을 때마다 수 톤씩 나오는 영농부산물을 파쇄지원단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농가 입장에선 이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9일 동화면 파쇄작업 현장을 찾아 일손



을 거든 김한중 장성군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산불 예방과 탄소 중립 실천, 농가 경영 지원 효과가 탁월한 효자 사업"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남 곡성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곡성 햇빛소득마을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9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정부의 세부 시행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 곡성군, 전남 최초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 주민참여형 에너지소득 모델 추진 시동

군민들의 공공증을 해소하고 향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단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민원실, 인구정책과, 군민협력과, 농정과 등 5개 행정 부서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기관 협력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모 선정 전 단계(마을협동조합 구성, 입지 발굴, 부지 임대 컨설팅) ▲공모 선정 후 단계(금융 상담, 추가 지원 방안 협의) ▲시행 단계(설계·시공·운영 컨설팅) ▲사후 관리(운영 역량 강화, 수익 배분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밀

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사전 수요 조사를 마친 30개 마을은 별도 절차 없이 우선 컨설팅을 시작하고,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사업 준비가 된 마을을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곡성군 전역에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보성군,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로 주민 소통·안전 강화  
1만 2,000여 가구 설치 완료... 군민 만족도 95% 호응

보성군이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2년간 관내 약 1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를 보급해 집 안에서도 마을방송을 선명하게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현대화된 주택 구조와 난청 지역 등으로 기존 마을방송 청취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집 안에서도 각종 행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수신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마을과 떨어진 생활 환경에서도 문화 행사, 영농 교육, 행정 안내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 소통이 한층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출 후에도 녹음된 방송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반응이다.

가정용 마을방송 수신기는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재난 위험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신기를 통해 집 안에서도 방송을 명확하게 청취할 수 있어 심야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보성군이 2025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848명 중 수신기 설치에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깨끗한 방송 청취(81.5%), △농진 방송 재청취 기능(53%), △시계 기능 등 편리성(52.1%) 등이 꼽혔다.

현재 수신기 설치율은 71.2%를 달성했으며, 올해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아 장마철 이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통해 주민 소통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무안군, 농작업 안전관리자 배치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무안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준공식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컨설팅 홍보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된 농작업 안전관리자 2명이 참여해 ▲농작업 안전 컨설팅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계절별 농작업 위험요소 관리 ▲개인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박시린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구례군, 제18기 농업인대학 개강식 성료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일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제18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소득작목반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 후 지난해 구례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김민한 박사를 초청해 '유통시장의 변화와 농산물유통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농업인의 전문성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장흥군, 지방회계 계약 실무교육으로 업무 정확성 제고

장흥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회계 및 계약담당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과 지방회계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연관 및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지방회계 실무 사례와 감사지적 사례 분석, 계약업무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명상·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